



유투 물에 빠진 벽지

물에 적서 문지르면 도배 끝... 초간편 조각벽지 인기

“집을 꾸미는 일이 노동이 아니라 놀이가 됩니다.”

DIY 벽지업체 유투의 박희원 대표는 소비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조각벽지 ‘물에 빠진 벽지’ 제품의 장점을 이같이 설명했다. 노부부와 아이들은 물론 가족이 직접 벽 한 개 면부터 방 전체를 꾸밀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유투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대만 러시아 등 현지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도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물에 적신 뒤 맞닥 시공

‘물에 빠진 벽지’는 가로 53cm, 세로 34cm 크기의 벽지 조각을 냉수나 미온수에 푹 담근 뒤 손으로 쓱쓱 문질러 벽에 붙이면 된다. 벽지를 물에 담그면 벽지 뒷면에 미리 칠해진 풀(워터글루)이 올라오며 끈적해진다. 박 대표는 “실크벽지나 합지벽지 위는 물론 페인트칠을 한 곳이나 나무, 타일 위에 그대로 도배할 수 있다”고 했다. 기포나 구겨짐도 견조되면서 말끔히 퍼진다.

그는 “별도의 도구 없이 벽지를 겹치지 않고 끝선만 맞춰 손으로 문지르면 자연 건조되면서 단단히 벽에 부착된다”며 “여름철에는 2-3일, 겨울철에는 약 1주일이면 완전히 마른다”고 설명했다.

이 벽지는 해외에서 주로 쓰이

던 풀이 발린 벽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국내 벽지회사에서 2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한 박 대표는 캐나다의 한 벽지 공장과 시설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모자이크처럼 조각조각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벽지 개발에 들어갔다.

스스로 만들고 시공하는 DIY 제품에 익숙지 않은 국내 소비자가 3-4시간 내에는 붙였다 뗄 수 있도록 실크벽지 뒷면 부직포 두께

모자이크처럼 붙이는 벽지 벽지-나무 위에 간편 시공 벽돌 등 디자인만 수백가지 美·日 등 20개국에 수출

를 기존 제품보다 4.5배 두껍게 했다. 강력하면서도 유해 성분이 없는 풀은 자체 개발했다. 영국산 풀 원료와 독일산 벽지원지 등을 수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국산 일반 벽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 조각벽지 한 롤(60장)로 대개 방 두 개 면 혹은 거실 한 면(약 10.8㎡)을 시공할 수 있다. 소비자가격은 10만 원 미만이다.

◆조각벽에서 영감 얻어 개발 8년 전 사업을 시작한 박 대표는



박희원 유투 대표가 벽돌 무늬 조각벽지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2013년 유투를 설립했다. 유투(U2)는 ‘기대하지 못한 독특함(unexpected uniqueness)’의 앞글자에서 따왔다.

집에서 부인이 천 조각을 이어 붙이는 조각보를 만드는 데서 영감을 얻어 조각벽지를 개발했다. 국

내 일반 벽지의 폭은 160cm다. 유투는 비전문가가 조각조각 붙여도 타기 잘 나지 않도록 무늬가 화려하거나 큰스타일을 벽지에 적용한다. 새내 디자이너들이 고안한 수백 종류의 벽지 중 벽돌과 스톤(돌) 무늬가 가장 인기가 높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매일(i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0월의 으뜸중기 제품 △여명테크-막힘 해소 조절수 양변기 △유투-물에 빠진 벽지 △네오파-LED 펄 밴드 △스케이와 이파-리튬 자동차 배터리

◆홈쇼핑-온라인몰에서 입소문 박 대표는 “진짜 벽돌이나 대리석, 스톤으로 벽을 장식하면 재료비나 인건비가 비싸지만 조각벽지를 이용하면 인건비 부담 없이 쉽게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마트에서 2015년 처음 선보인 ‘물에 빠진 벽지’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 중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2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박 대표는 “향군 탈취기능이 있는 액자 형태의 ‘아트보드’, 겨울철용 ‘단열 벽지’ 등 다양한 추가용 복지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moon@hankyung.com

5兆 규모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공략 나선 국내 제약사들

지트리비엔티·휴온스 등 미국서 해외 임상 중

업체	후보물질	연구개발 단계
지트리비엔티	RGN-259	미국 임상 3상 중
한올바이오파마	HL036	미국 임상 2상 승인
휴온스	HU024	미국 임상 1상 완료
삼진제약	SA-001	한국 임상 2상 승인

자료: 각사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다. 수년 내 5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인 세계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8월 업계에 따르면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국내 기업은 지트리비엔티다. 지트리비엔티는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받은 임상 3상의 2차 환자 투여를 최근 완료했다. 내년 FDA 임상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많이 증발해 안구 표면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대기 오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확산 등으로 안구건조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이 2014년 21억5000만 달러(약 2조4600억원)에서 2024년 45억9000만 달러(약 5조 2600억원)로 연평균 7.9%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FDA 허가를 받은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두 개에 불과하다. 2003년 승인된 엘라칸의 레스타시스와 지난해 허가받은 사이어의 자이드라가 있다. 자이드라는 지난해 8월 출시돼 4개월여 만에 5400만 달러(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트리비엔티는 임상 3상의 2차 투여 결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3상 1차 투여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RGN-259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2차 투여에서 1차 투여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신약허가신청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RGN-259는 레스타시스, 자이드라 등 기존 치료제보다 효능이 뛰어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트리비엔티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면 기술수출 협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과 HL036을 공동 개발 중인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달 28일 FDA에서 임상 2상을 승인 받았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항TNF 항체를 안약 형태로 점안 투여하는 바이오메터(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다. 한올은 지난 달 자가면역질환 항체신약 HL161과 HL036의 중국 사업권을 허버바이오메드에 8100만 달러(약 93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내년 8월까지 HL036의 임상 2상을 마칠 계획이다.

휴온스는 연내 FDA에 안구건조증 신약후보물질 HU024의 임상 2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먹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SA-001의 임상 2상을 승인 받았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IT 활용하면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효과 높아”

마레로 메에리조니 유럽대 교수

“한국만큼 디지털 헬스케어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연 국제학술대회 ‘ICDM’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데이비드 마레로 미국 메에리조니 유럽대 교수(사진)는 “한국은 건강보험제도가 잘 갖춰진 데다 상당수 국민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건강 정보가 많다”며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기술(IT) 인프라가 뛰어나 건강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연구하는 보건 전문가

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미국 당뇨병학회장을 지냈다.

마레로 교수는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일단 시작되면 치료가 어렵고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한국인 상당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이 데이터를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위험군 파악이 수월하다”고 했다. 그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 만성질환 발병을 줄인다면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레로 교

수는 개발에 참여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음식을 섭취할 때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인지시키고, 당뇨병이나 체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마레로 교수는 “당뇨병 위험군을 대상으로 4년에 걸쳐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했더니 참가자 중 체중은 5-7% 감량하고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60-70% 낮았다”며 “당뇨병 예방을 위해 당뇨병 약을 투여한 그룹보다도 예방 효과가 좋았다”고 했다.

연구 결과는 2001년 의학 분야 학술지인 ‘뉴잉

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에 게재됐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당뇨병 위험군을 대상으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4월 처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업체 높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인증했다. 65세 이상 당뇨병 위험군이 높의 모바일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 마레로 교수는 “IT를 접목한 건강관리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연결된 코치로 부터 교육, 상담, 훈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접근하기가 쉽고 동기 부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내일채움공제 해지율 3년 새 3배 급증

중소기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인 내일채움공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탈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제도 도입 후 2015년 10.1%이던 해지율이 매년 증가해 올해 9월 기준은 30.3%로 세 배로 높아졌다.

해지 사유로는 핵심 인력의 자발적 퇴직에 의한 것이 50.4%로 가장 높았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핵심 인력)가 공동으로 정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한국, 의료비 가계부담 OECD 3위

OECD 건강 통계 2017

한국 국민이 직접 내는 의료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OECD 건강 통계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기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경상 의료비에서 공공재원 비중이 한국과

같거나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56.4%) 멕시코(51.7%) 미국(49.1%) 등 3개국뿐이다.

공공재원 비중이 적은 만큼 한국 국민이 직접 내는 의료비 부담은 비교적 컸다. 2015년 기준 국내 의료비 지출 중 가계 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3%)보다 1.8배 높았다. 한국은 라트비아(41.6%)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국민 부담이 큰 나라로 꼽혔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국민 부담을 키웠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실천하는 기업 알루미늄 압출 전문기업 (주)성진금속의 김상진 대표이사는 피플라이프 경영효율화서비스의 고객입니다.

국내 최고, 최대의 비상장기업 전문 컨설팅그룹 피플라이프는 세무, 법무, 노무, 부동산, IR,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상황별 원스톱 토탈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자금금 정리
이익잉여금 / 배당
비상장 주식이동
기업승계전략
증여 · 상속**

지금 피플라이프 재무보좌관의 특별한 중소기업 컨설팅을 경험해보세요.

피플라이프
검색
☎
1644-4501

피플라이프는 경영 효율화 지원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임박적인 안내 및 컨설팅을 실시하며, 세무, 재무, 법무, 노무, 부동산 등을 통하여 정부, 세무, 노무, 특허 등 기타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플라이프
Financial Consulting